

<졸업회원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최창규 선배님>



최창규 선배님은 경제학부 00학번이시고 현재 SK 텔레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홈커밍 데이 때 청산유수와 같은 입담과 개그맨 뽀치는 유머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던 최창규 선배님. <선배와의 만남> 자리에도 김한솔 선배님과 함께 후배들을 찾아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며 넘치는 동아리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 가지 여쭙어 보고 이야기를 들어 볼 계획이었는데요, <선배와의 만남> 자리에서 따로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너무도 친절히 설명해주셨던 까닭에 그날 하셨던 말씀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러면 멋쟁이 최창규 선배님을 만나러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Q) 선배님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제 직함은 CK 엔터테인먼트 실장입니다”라는 농담으로 운을 떼셨던 선배.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SKT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다고 들은 거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걸까? 돈은 좀 버는 편이라고 본인 입으로 약간씩 흘리는 정보가 있기는 한데... 과연?

“저는 SK 텔레콤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부서는 경영전략팀입니다. 쉽게 말해서 CEO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회사가 하나로 텔레콤을 인수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CEO를 보좌하는 게 바로 저희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T라면 보통 통신과 관련된 일만 하는 기업

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러한 경영전략팀이야말로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핵심 역량이 아닐까요? 국내 최고 대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SKT에서 M&A를 포함한 CEO의 최고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 동아리 후배로서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팀 분위기는.... 무척 바빠요. 하는 일이 아무래도 그렇다보니 기밀도 많고 조용한 분위기에요. 보통 아침 여덟시 오십분까지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저녁 일곱시에서 여덟시까지가 20%, 여덟시에서 열시까지가 50%, 그리고 10시 이후가 한 30% 정도?”

주말엔 놀거나 영어를 공부하고 이것저것 자기 계발도 하신다는 최창규 선배님. 자기 일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짬짬이 풍류와 낭만을 추구하는 선배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는군요.

Q) 입사를 위해 준비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A) 취업이 입시보다 어렵다고들 하는 요즈음, 우리 SFERSian들도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하나 또 취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하나 생각이 많을 텐데요, 최창규 선배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목표는 원래 사기업이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의 많은 경제학부생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막연히 행정고시나 금융공사 쪽을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하지만 그쪽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도 멋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판사나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은 80을 80으로 현상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원 혹은 비즈니스맨으로서 업계 최전선에서 발로 뛰며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80을 100으로 만들고 120으로 만들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기업에 몸을 담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제 능력을 발휘하며 다이내믹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전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이 됐건 공모전이 됐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저의 경우는 학원 강사 경력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두 명 앉아 있던 수강생이 나중에는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나더군요. 암울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이룩하고 성취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여행을 실컷 다니세요. 회사원 되기 전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원 없이 세계 곳곳을 누벼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레쥬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지원자의 가치관을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한

다는 점입니다. 제가 면접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의 부인이 출산에 임박해 당신을 몹시 애타게 찾고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할 프로젝트가 있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처하는 한 가지 요령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하나씩 달아가며 상황을 구체화시켜 좁혀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면 막연하게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Q) 회사 생활을 하면서 행복할 때랑 회의가 들 때가 있다면?

A)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학교 다닐 때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 혹은 회의감도 맛보게 될 거 같은데요, 최창규 선배님도 회사생활은 학교생활과 다르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여러분, 회사와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학교는 내가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인데 반해, 회사는 내가 돈을 받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만큼 반드시 밥값은 해야 한다는 얘기죠.”

“회사 다니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아무래도 칭찬받을 때죠. 내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때, 고객이 만족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회의감이 들 때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인격 모독성 발언도 가끔씩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학교는 제대로 다녔냐 와 같은 말을 들을 때면 약간의 후회랄까 모멸감이 드는 게 사실이죠. 바로 여기서 그것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죠.”

Q) 그밖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여러분들이 되는 데로 시류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짜 놓은 **Life Plan**에 따라 인생을 사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많이 있지만 역시 결혼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환경은 비슷하되, 성격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사람 만나시길.”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최창규 선배님. 다음과 같은 선배님의 말씀을 끝으로 이만 최창규 선배 특집 기사를 마칠까 합니다.^-^ “선배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가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어떤 선배라도 언제 어디서나 반갑게 잡아줄 것입니다.”